광주시·국민대, 미래차 실증도시 구축

강기정 광주시장이 16일 오후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국민대 정승렬 총장과 초거대 AI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국내 유일 자동차 특화 대학…강기정 시장-정승렬 총장 협약

광주에 초거대 AI 미래차 연구소…인재 양성·기술 개발 협력

광주시가 자동차 특화대학인 국민대학교와 함께 기업과 시민 생활에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도시 모델 구축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정승렬 국민대 총장 등은 16일 광주시청 비즈니스룸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광주에 초거대 인공지능 모빌리티 연구소를 설립하고 지역 주도 인공지능 모빌리티 융합인재 양성, 인공지능 산업융합형 연구개발과 사업화, 관련 기업 창업 지원, 실증 지원 등을 하기로 협약했다.

광주시는 국민대와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고 인공지능 집적단지의 데이터센터와 실증 장비 등 기반시설을 활용해 우수 인재 양성과 기술개발 등에 나설 방침이다.

국민대는 올 상반기 중 초거대 인공지능(AI) 모빌리티 연구소를 설립할 계획이다.

자동차융합대학과 자동차산업대학원, 국내 유일 자동차 중심 전문대학원인 자동차공학전문대학원을 운영 중인 국민대는 무인 차량과 지능형 모빌리티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실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지난해 11월 세계적 수준의 국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개관했으며 올해 말 국내 유일 인공지능 집적단지 준공을 앞두고 있다. 2025년부터는 지역과 지역 기업에 인공지능을 입히는 2단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정승렬 국민대 총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첨단 연구개발(R&D) 분야를 선점한 광주시와 모빌리티 분야에서 교육과 연구의 강점을 가진 국민대가 협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고, 강기정 광주시장은 "새로운 지·산·학·연 협력을 통해 '인공지능 실증도시'로서 대한민국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5·18 폄훼 허식 인천시의장 사퇴하라"

광주시의회, 5·18 특위 성명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는 16일 5·18민주화운동 폄훼 내용의 신문을 동료 의원들에게 배포한 허식 인천시의회 의장의 의장직 사퇴를 촉구했다.

5·18 특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허 의장은 지난 2일 인천시의원들에게 5·18을 왜곡·폄훼하는 간행물을 배포한 뒤, 자숙과 반성은커녕 지난 15일 또 의회 단체 대화방에 왜곡 기사를 올리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위는 "5·18 기록물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돼 세계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찬성했다"며 "이미 규명된 역사적 사실마저 거듭 부정하고 왜곡하는 것은 정상적인 공인의 자세라고 보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 의장은 전국적 지탄을 받고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에서 징계가 논의되자 부랴부랴 탈당했다"며 "허 의장의 공식 사과와 의장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허 의장은 지난 2일 비서실을 통해 특정 언론사의 5·18 특별판 신문 사진을 전체 의원실에 배포했다. 신문에는 '5·18은 DJ 세력·北이 주도한 내란', '일반 시민은 도저히 흉내 낼 수 없는 군사작전' 등 5·18 왜곡·폄훼 내용이 담겼다.

또 지난 15일에는 시의회 간부 직원을 통해 인천시의원, 사무처 직원 등이 있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한동훈 北개입 변란 5·18 너무 몰라…국힘 분열만 불렀다'는 제목의 특정 언론사 1면 기사를 공유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책 추진

전남도, 숙소 제공·임금 지급 여부 등 점검…하반기부터 통역 지원

전남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인권침해 방지 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시·군과 함께 실태조사를 진행하면서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겠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서는 5000명이 넘는 계절 근로자가 입국해 지역 현장에 없어서는 안될 '이웃'이며 '동료', '가족'으로 자리잡았는데도, 여태껏 어떤 숙소에 어떻게 머무르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관심갖는 데 소홀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2일 시·군과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에 대한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이들 고용주들을 대상으로 인권보호 준수사항 이행을 촉구하기로 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외국인력을 도입해 농번기 중 3~8개월간 농어가와 외국인이 고용계약을 하고 인력을 활용하는 제도로, 전남에는 지난해만 5879명(농업 3482명·어업 2397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했다. 올해도 상반기에 8596명(농업 5818명·어업 2778명)이 배정돼 입국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이같은 점을 감안, 지역에 위치한 다문화센터와 공동으로 시·군, 읍·면 담당자들과 전담반을 꾸리고 외국인 적합 숙소 제공 여부, 임금 지급 및 여권·통장 보관 금지 사항 등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키로 했다.

폭언·폭행 등 인권 침해 여부도 계절근로자들을 상대로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언어소통도우미(통역) 지원 사업도 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교육청, 교육발전특구 광주모델 개발 협력

공청회 열고 각계 의견 수렴…전담팀 구성해 과제 발굴

광주시와 시교육청, 지역사회가 '교육발전특구 광주 모델' 개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광주시와 시교육청은 16일 시청 무등홀에서 '교육발전특구 공모사업 공청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100여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에서는 김영현 교육부 사무관이 '교육발전특구 추진배경 및 방향'을 주제로 교육발전특구와 연계 가능한 주요 교육개혁 정책을 설명한 데 이어 신수정 광주시의회 교육문화위원장을 좌장으로, 백희정 광주지방시대위원회 위원, 김현우 조선대학교 대외협력처장, 최홍진 광주소프트웨어마이스터고 교장, 김은주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지정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백희정 광주지방시대위원은 "상위층을 위한 교육 여건 마련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놓치지 않는 교육정책이 필요하다"며 "모두를 위한 광주형 교육발전 특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현우 조선대 대외협력처장은 "대학과 교육청, 지역이 교육과정을 공유하고 특성화를 해야한다"며 "교육발전특구와 지역대학 간 협력방안 모색을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최홍진 교장은 "교육발전특구의 목표가 지자체·대학·지역산업체와 연계를 통해 지역에 우수인재를 양성하는 만큼 교육발전특구에 직업계고의 참여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김은주씨는 "학부모가 바라보는 광주형 교육발전특구가 필요하다"며 "지역인재들이 광주에서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특전이 확실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시와 교육청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검토해 광주형 교육발전특구 모델을 개발하고, 다음달 시범운영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고광완 광주시 행정부시장은 "교육발전특구가 지향하는 돌봄과 공교육 강화, 인재양성 등 목표에 광주가 가장 부합하는 도시라고 확신한다"며 "광주형 모델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박진표 기자 lucky@

1주일 빨리 찾아온 봄의 전령사

완도 상왕산 중턱서 복수초 개화…꽃말, 복·장수를 주는 풀

매년 행복과 건강을 가장 먼저 전하는 꽃으로 유명한 봄의 전령사 복수초가 완도 상왕산 중턱에 샛노랗게 고개를 내밀었다. 복수초는 '복과 장수를 주는 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눈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설연화, '봄이 오기 전 눈과 얼음 속에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으로 불리기도 한다.

밤과 이른 아침에 꽃잎을 닫고 있다가 일출과 함께 꽃잎을 점차 펼치는 신비한 특징이 있어,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께가 황금빛 복수초를 감상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대다.

생명을 다하고 수북이 쌓인 낙엽을 이불삼아 스치기만 해도 부러질 듯 연약한 꽃망울을 지난 11일 드러내며 봄이 멀지 않았음을 알리고 있다. 지난해(1월 19일)보다 1주일 빠른 개화다.

완도수목원은 기후변화에 따른 식물 계절 관측 모니터링을 위한 산림청 주관 '기후변화 취약 산림식물종 보존·적응사업'을 통해 우리나라 자생식물의 식물계절(개엽·개화·단풍·낙엽 등) 현상을 장기 관측하고 있다. 이 사업엔 권역별로 10개 대표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완도수목원은 2010년부터 참여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